

대우조선, 세계 첫 FRS적용 건조 LNG 운반선 독보적 기술력 입증

(완전재액화시스템)

고·저압엔진 모두 적용 가능해져
올 수주 9척 모두 FRS 탑재 예정
선주 연간 80억 운영비 절감 기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인도한 완전재액화시스템 적용 LNG운반선의 운항 모습.

대우조선해양이 부분재액화시스템(FRS)에 이어 보다 진보한 완전재액화시스템(FRS)도 성공적으로 선박에 적용하며 LNG운반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LNG운반선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재액화하는 완전재액화시스템을 적용한 LNG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연가스 재액화장치는 LNG운반선 운항중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재액화해 다시 화물창에 집어넣는 장치로 LNG운반선의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어서 선주들의 선호도가 높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부분재액화시스템을 적용한 LNG운반선을 인도한데 이어 이번에 완전재

액화시스템을 적용한 LNG운반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LNG 관련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주전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9척의 LNG운반선에는 모두 완전재액화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으로 선주는 연간 약 80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고압엔진(ME-GI)용 부분 및 완전재액화시스템을 적용한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저압엔진(X-DF)용 완전재액화시스템이

적용된 선박도 곧 인도가 예정돼 있어 세계 최초로 재액화시스템을 고압엔진뿐만 아니라 저압엔진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15년 구축한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를 통해 현재 압도적인 LNG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최근 자체 개발한 LNG화물창인 솔리더스와 맥티브도 곧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에어부산, 썸머 바캉스 특가 이벤트 부산~홍콩·대구~오사카 7만원 대

오늘 2시부터 30일까지 판매

에어부산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국제선 노선을 대상으로 '썸머 바캉스'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19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이번 특가 이벤트는 여름 바캉스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만능 바캉스' 항공권을 판매하며,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특가 이벤트는 에어부산 국제선 노선 중 일부 노선을 제외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총 21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모두 합한 1인 편도 총액 기준으로 부산 출발 후쿠오카 5만2800원, 홍콩 7만6400원, 나고야 7만7800원, 다낭 11만3500원, 세부 15만8500원, 비엔



티안 16만2500원, 울란바토르 22만35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대구 출발 후쿠오카 6만2800원, 오사카 7만7800원, 도쿄 8만2800원, 다낭 10만3500원, 하이난(싼야) 12만25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특가 이벤트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특가 항공권임에도 15kg 범위 내 무료 수하물 위탁이 가능하다.

/정연우 기자 yw964@

SK텔레콤-노키아

5G 단독규격 기반 데이터 전송 시연 성공

기술표준 완성 닷새 만에 성과
자율주행 등 응용 가능성 확인

SK텔레콤이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키아와 5G 글로벌 기술표준이 완성된 지 닷새 만에 이를 활용한 데이터 전송 시연에 성공했다.

양사는 18일(현지시간) 폴란드 브로츠와프 노키아 연구소에서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단체 3GPP의 5G 글로벌 표준 기반 5G 단독 규격(SA)을 활용해 ▲이동통신 송·수신 전 과정을 5G로 처리하는 '엔드 투 엔드 데이터 전송'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 등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SA규격 기반 ▲가상현실 ▲초고화질 동영상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가능성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로는 가장 먼저 5G 글로벌 표준의 SA규격 기반 시연에 성공하며 '5G 조기 상용화'에 한 발 더



SK텔레콤과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키아 연구원들이 18일(현지시간) 폴란드 브로츠와프 노키아 연구소에서 5G글로벌 표준의 5G단독 규격 기반 데이터 전송을 시연하고 있다. /SK텔레콤

앞서가게 됐다.

5G 표준의 SA규격은 이동통신 데이터 송·수신 전 영역을 5G로 처리한다. SK텔레콤과 노키아는 SA규격이 미국 라호야에서 13일(현지시간) 발표된 이후 표준에 부합하는 자사 5G 기지국 시제품 등을 만들어 냈다.

SK텔레콤은 NSA, SA규격 5G 네트

워크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5G 첫 상용화에는 NSA표준 단말, 장비가 활용될 전망이다. 상용화 초기에는 5G 커버리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와 연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추후 SA표준 기반 5G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화학, ESS 유럽 2018 참가 대용량 ESS신제품 공개

LG화학은 독일에서 열리는 'ESS 유럽 2018'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ESS 유럽 2018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시회 중 하나다. 독일 뮌헨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LG화학은 이 전시회에서 2016·2017년 연속 'ESS 어워드 ESS 부문본상'을 수상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대용량 ESS 신제품 'RESU13'을 출시해 주택용 ESS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 제품의 에너지량은 13.1kWh다. 기존 대용량 모델보다 에너지



LG화학은 독일에서 열리는 'ESS 유럽 2018'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LG화학 전시장 조감도. /LG화학

량이 34% 향상됐다. 이 제품은 2대를 병렬 연결해 최대 26.2kWh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 올해 3분기 내에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박찬길 기자 cgr@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미지.

/팜지주식회사

배그 모바일, 한 달 만에 600만 다운 돌파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출시 한 달 만에 6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다.

팜지 주식회사는 지난 5월 16일 출시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6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PC로 출시된 배틀로얄 방식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

틀그라운드'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구현한 게임이다.

팜지 주식회사는 이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대규모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업데이트를 통해 1인칭(FPP) 모드, 총기 스킨 및 무기, 신규 아케이드 모드 '극한매치', 로얄 패스 등이 추가됐다.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KT스카이라이프 제 5회 UHD 영상 페스티벌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제 5회 UHD 영상 페스티벌'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국내 UHD 방송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작된 UHD 영상 페스티벌은 일반인들에게 UHD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KT스카이라이프의 UHD 콘텐츠 공모전이다.

이번 행사는 KT스카이라이프와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 UHD 전문 채널인 skyUHD·UXN·AsiaUHD·UHD DreamTV·SBS Plus UHD가 공동 주최하고, 스카이라이프티브이(skyTV)가 주관한다.

올해는 자유 주제 부문 외에도 문화유산 부문을 신설해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선정된 최종 수상작은 스카이라이프티브이(skyTV)의 콘텐츠 후반작업 후 skyUHD 등 주최사 채널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 중동을 비롯해 애플TV 등에 방영 중인 한국문화재단의 '문화유산채널'을 통해 역량 있는 국내 UHD 콘텐츠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2018 제 5회 UHD 영상 페스티벌 안내 포스터.

KT스카이라이프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UHD 콘텐츠 제작 기획안을 접수 받고 7월 31일에 10개 내외의 우수 기획안을 선정해 총 8000만원 상당의 제작비와 촬영장비를 지원한다. 또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기 선정된 우수 기획안의 제작 영상과 함께 일반 영상물을 접수 받고 12월 13일에 10개 내외의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총 30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부상이 수여된다.

/김나인 기자